

가마오름 진지 규모 드러나

본보 특별취재팀 조사 결과 총연장 2km로 최장 길이
태평양전쟁 제주전략거점기지 실체 규명 전기 마련

특별취재팀=이윤형·표성준·이승철 기자 기자
입력 : 2008. 06.29. 18:13:27



"제주도 전체가 박물관...세계 평화교류 위한 관광자원 활용"

'2008 등록문화재 일제 동굴진지 조사·활용방안 국제워크숍'

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에 의해 구축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가마오름 동굴진지가 현재
까지 확인된 진지 중 최장인 2km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

이같은 조사 결과는 일본이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전략거점기지로 제
주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(사)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등록문화재 일제 동굴진지 조
사·활용방안 국제워크숍이 29일 제주칼호텔에서 개최됐다. 이날 워크숍에는 도내 연구진과 일
본의 전문가,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문화교통국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.

▷제주도 일본군 전적지= 이윤형 본보 특별취재팀장은 "도내 3백68개 오름 중 현재까지 1백
20여개 오름 등지에 구축된 일본군 동굴진지를 조사한 결과 가마오름은 순수 동굴진지만 총연
장 1,901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"며 "교통호 길이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연장은 2km 이상

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"고 발표했다.

특히 가마오름은 길이뿐만 아니라 3단구조인 미로형 동굴진지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제주
는 물론 일본토를 포함한 전쟁유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. 김동전 제주
대 교수는 "전쟁유적은 제국주의 침략의 부당성 고발, 평화인권교육의 장소, 전쟁당사자들의
참회 장소, 전쟁의 잔혹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보존 및 활용방안의 필요성
이 있다"며 "학술조사를 통해 그림과 사진, 모형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안내문을 설치하고,
평화학습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보존 및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▷일본 전적지 조사방법과 활용=기쿠치 미노루 일본 군마현 매장문화재사업단 연구원은 "전쟁
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승할, 잊어서는 안되는
사실로서 전쟁유적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"고 말했다.

쥬비시 슌부 야마나시 학원대학 교수는 "제주에 남아 있는 전쟁유적은 문화유산으로 지정 및
보존해 한국 시민들과 아시아 각국간의 평화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
을 것"이라며 "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적·문화유산을 보존 및 조명하면서 제주도 전체를 통째
로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도 좋을 것"이라고 제안했다.

<저자권자 © 한라일보 (<http://www.ihalla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